

이재명 “야당 폭력적 지배 맞서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

민주당 긴급의총...제1야당 중앙당사 압색 비판 대역 강경 투쟁 선언 “정부 예산안, 권력기관 강화에만 집중...민생경제 예산 최대한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대역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전 열린 긴급 의총에서 “정부와 야당이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중앙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론하면서 “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제1야당의 중앙당사가 침탈당한 폭거가 발생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다시 반박대선 안 될 참혹한 현장을 국민과 당원, 언론도 똑똑히 지켜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어 “특히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태는 정상적인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정치 도의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폭력적 지배만 남았다”며 “일부 정치 검찰들의 검찰 독재, 공안 통치가 판을 치고 있다”며 “민생으로 돌아가야 하고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 존중하고, 함께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윤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본관 로텐더홀에 집결해 ‘국회무시 사과하라!’, ‘이 XX 사과하라!’라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민생이면 야당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참 무성의하다”고 혹평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전 세계적 기후 위기와 불평등, 국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안보위기 등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를 헤쳐 나갈 수 있는냐에 대한 기대나 목표를 갖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무지·무능·무대책 이미지인데 시정연설도 그와 같은 수준”이라고 거듭 평했다. 그러면서 “긴축재정과 조부자감세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전혀 기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자 복지’ 기조와 관련해서도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등 민생예산을 10조 원 가까이 삭감하고 겨우 몇 푼 편성하고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며 비정하다 느낀다”고 평가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들어서자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했다. 그는 향후 예산 심사 방향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조부자감세에 대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만큼 세입이 증액된다. 또 불필요한 대통령실 예산 등을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한 손으로는 조우

의 정치 탄압으로 야당 말살에 몰두하고, 다른 손으로는 국회의 협력을 이야기하다니 참 염치 없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민생도, 경제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이 무능, 무책임, 무대책을 은폐하려 사회를 공안정국으로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도

쏟아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회 ‘이 XX’ 중 한 명으로 투쟁하겠다. 참 나쁜 대통령, 언젠가는 큰 코 다칠 것”이라고 밝혔고 조오섭 의원은 “야당을 탄압하고 협치를 파괴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썼다. 무소속 민행배 의원은 “주권자 시민에게 외면당한 대통령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심판받는 것이 순리”라고 비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연금특위 초당적 협력 다짐

여야 합의 3개월 만에 첫 회의...공론화위원회 설치 방안 검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제도 개혁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하며 본격적인 특위 출범을 알렸다. 지난 7월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특위 위원장에는 2015년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임됐고, 여야 간사는 국민의힘 강기웅 의원과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각각 맡았다.

주호영 위원장은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25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되지만, 2070년에는 100명당 100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적 갈등을 봉합하고 모든 세대에 안정적인 연금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특위의 무거운 소임”이라며 “지혜를 발휘해 백년대계의 공적연금 제도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명, 정의당 1명 등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앞으로 연금재정 안정화와 4대 공적연금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전남 22개 문화원 ‘문화 응성’ 다짐



문화원의 날 기념식 1000여명 참석

지역 문화 보존과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남 각 시·군의 22개 문화원의 관계자들이 모여 전남문화 응성을 다짐하는 제14회 전남문화원의 날 기념식이 25일 고흥에서 열렸다. (사진)

이날 기념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 황성환 전남 부교육감, 공영민 고흥군수 등과 송시중 전남문화원연합회장을 비롯한 전남 22개 지방문화원 관계자 15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문화원연합회와 시·군 문화원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도민

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한 함평문화원과 최기복 나주문화원장 등 4명에게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어 축사를 통해 “지역문화 공유와 확산의 거점 기지인 지방문화원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에 주력하도록 힘껏 돕겠다”며 “지방문화원과 함께 전남의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전남문화 응성시대’를 아름답게 꽃피우겠다”고 말했다.

전남문화원연합회는 1962년 창립 후 소실 위기에 처한 지역문화의 기억저장소로서 고유한 전통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f@kwangju.co.kr

“장관 자격없어” 여가위 국감 한때 파행

피켓 공방 등 개의 15분만에 정회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야당의 김현숙 장관 퇴장 요구로 개의 15분 만에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감사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자격 없는 장관에게 질의할 내용이 없으니 김 장관의 퇴장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양이 의원은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사람이 장관으로 앉아서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국정감사를

받겠다는 것이냐.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공고한 유리천장과 일상 속 성차별도 여전하다”며 “여가부 장관으로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가부가 더 강력해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 내 자기 자리에 놓인 노트북에 ‘윤석열 대통령님! 여가부 폐지해도 지지율 안 올라요’와 ‘여가부 폐지 세계적 망신 #여가부폐지반대’ 등의 글귀가 쓰인 피켓을 내걸었다.

여가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여가부 폐지밖에 모르는 김현숙 장관 사퇴하라’는 피켓을 세웠다.

이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것은 국정감사가 아니다”라며 “장관을 퇴장하러니, 우리도 다 같이 퇴장하겠다”라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이 서로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자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잠시 국정감사를 중지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여가위는 정회 후 20분 만에 재개했으나 여야 의원들 모두 노트북에 붙인 피켓을 떼지 않았다.

여가부는 지난 6일 부처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여성단체 간담회를 열며 의견을 수렴 중이다. /연합뉴스

상가, 신축부지 매매

1. 대인동 156평, 롯데백화점 옆
신안동 176평, 엄마요양병원 뒤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4. 매매 - 협의
5. 공동투자 하실분 모심

문의. 010-3605-5000